

第26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演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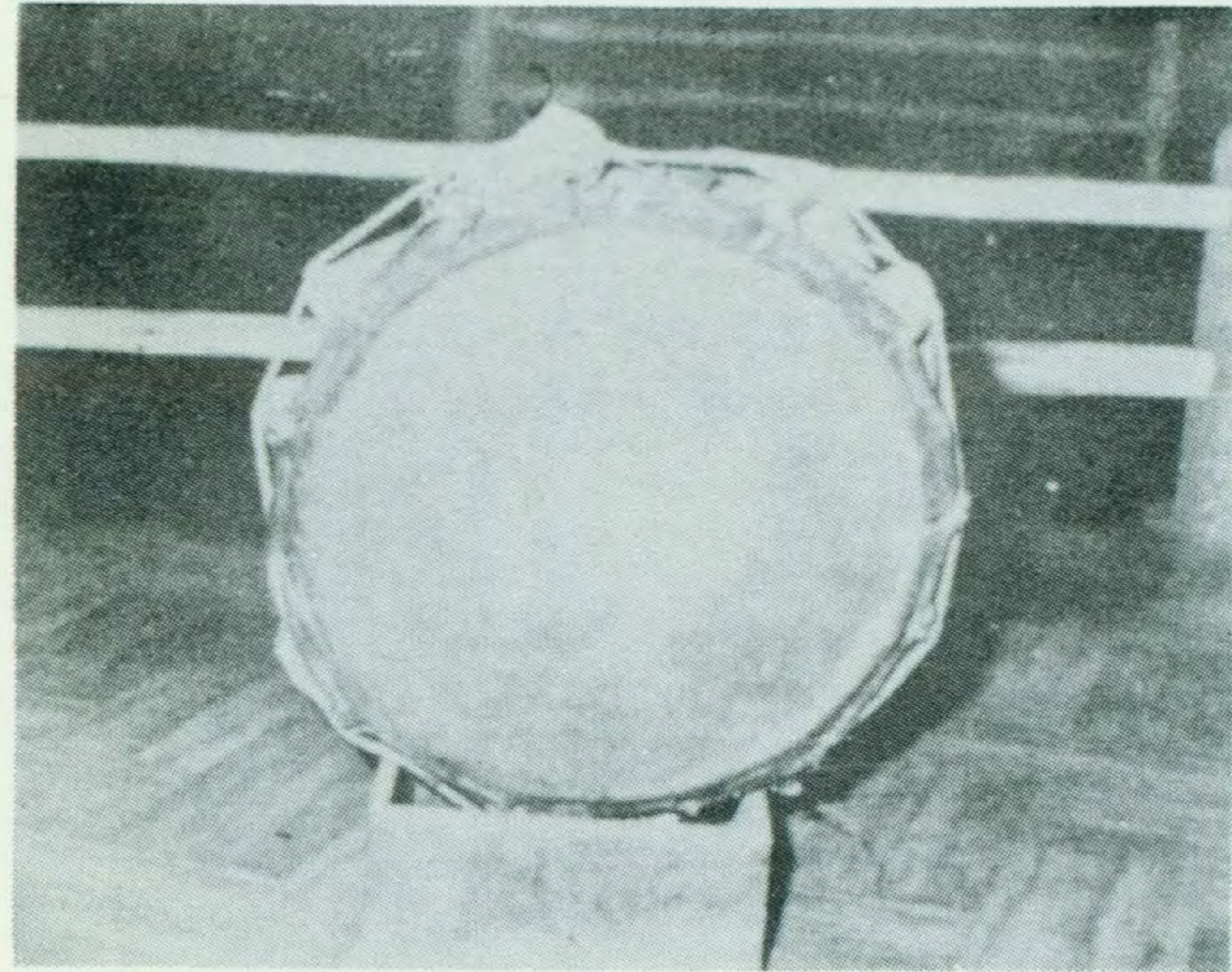
불싸움놀이

期間：'85. 9. 19~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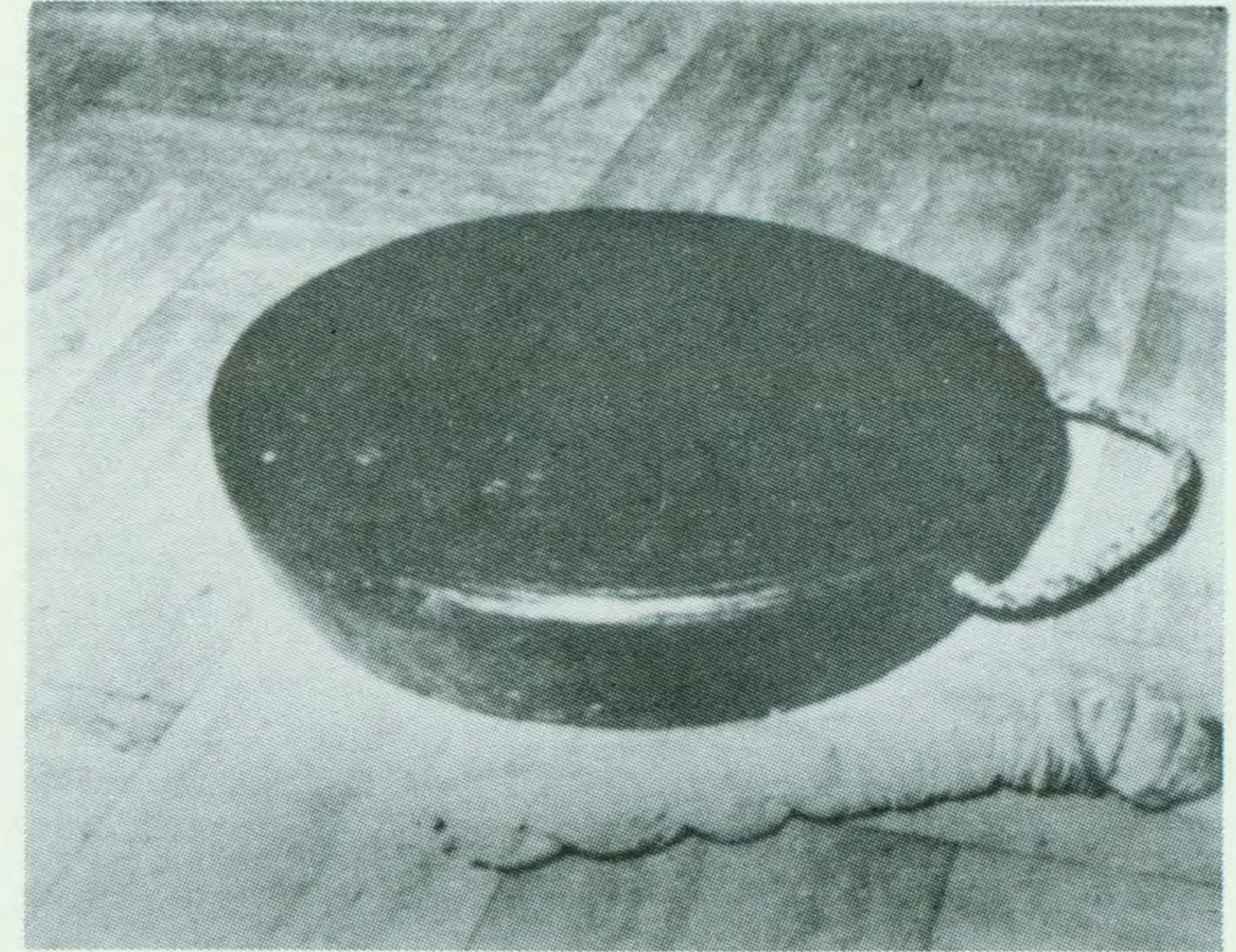
場所：강원도 강릉시
강릉공설운동장

濟州道 北濟州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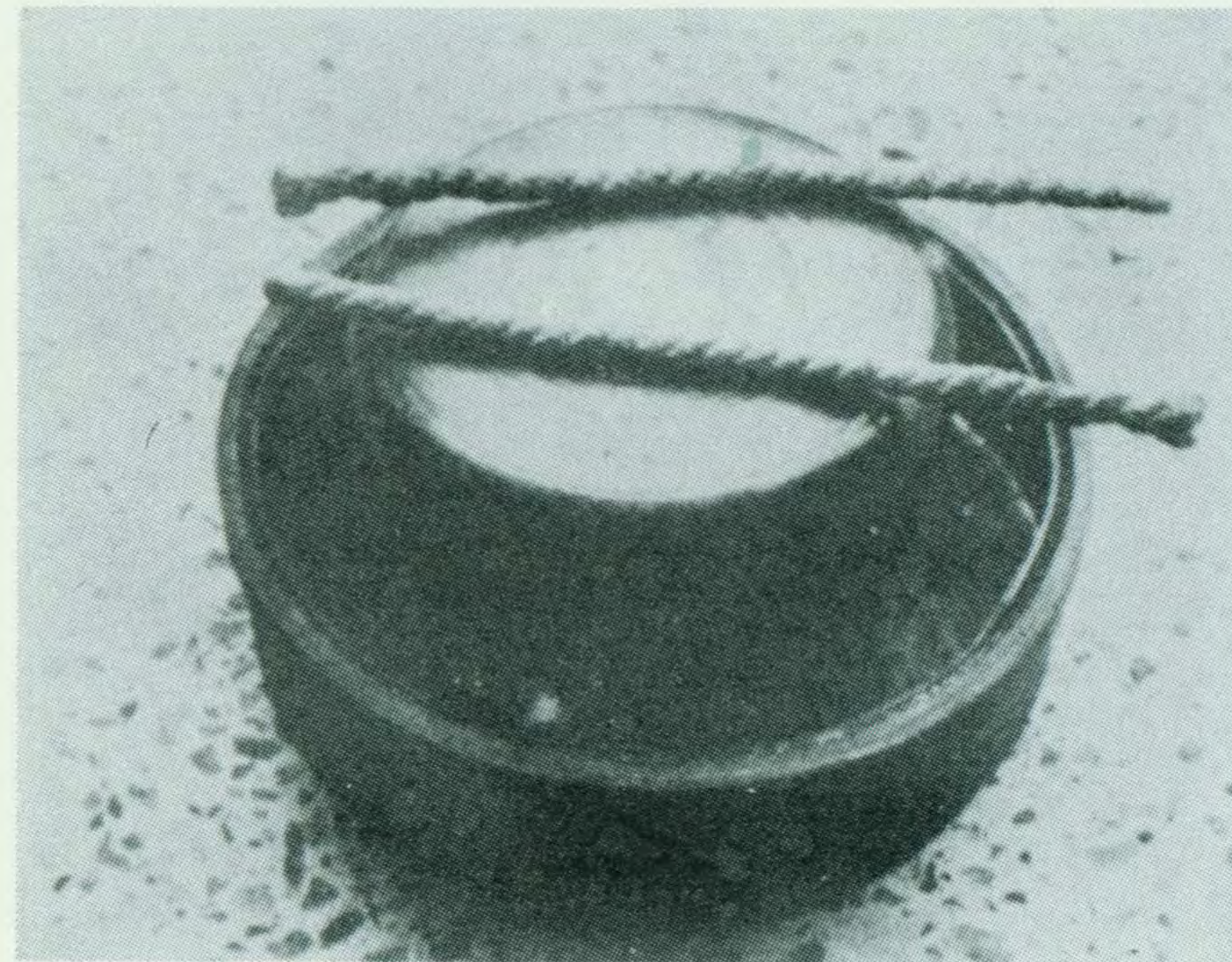
濟州島 民俗樂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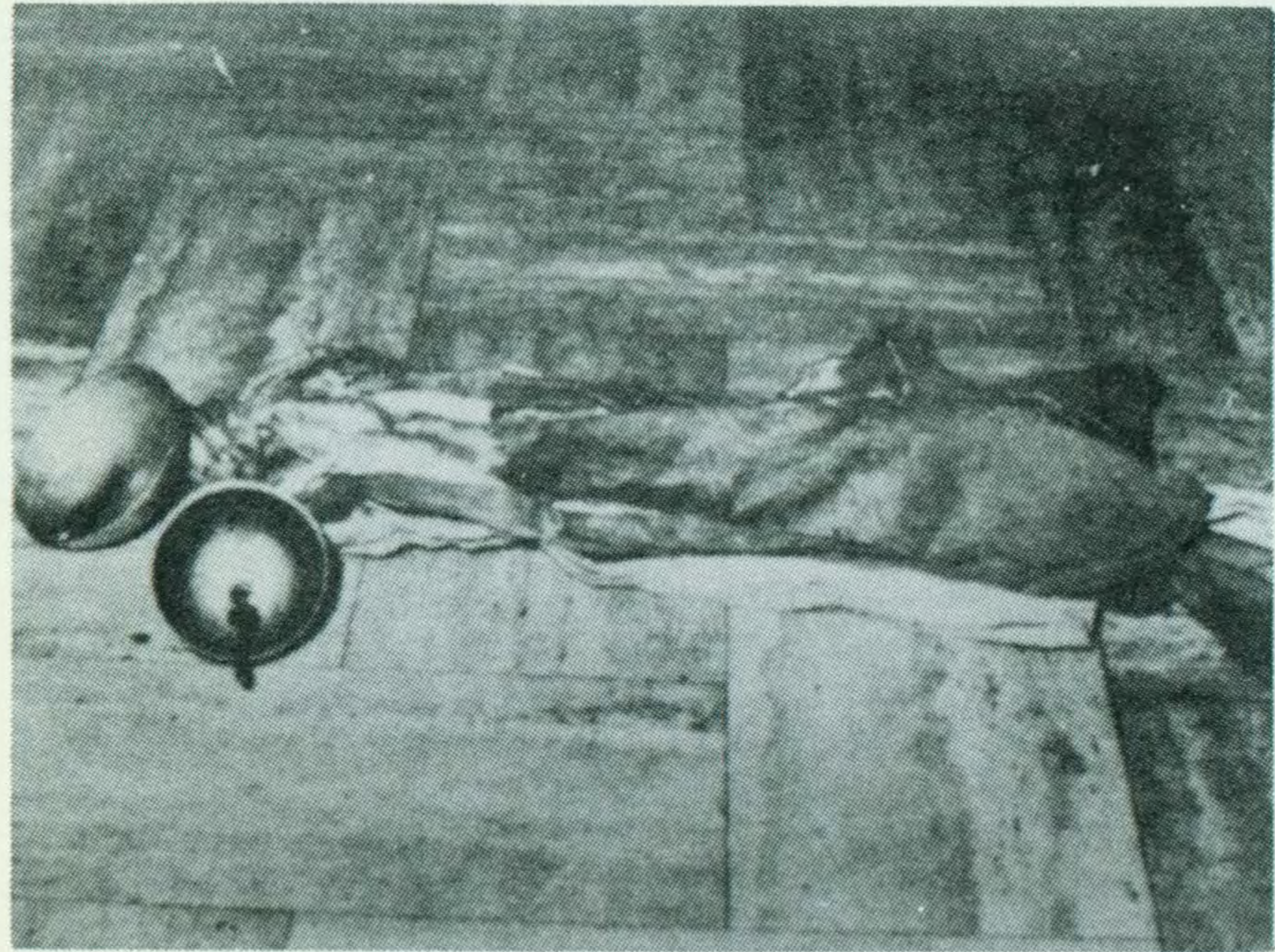
- 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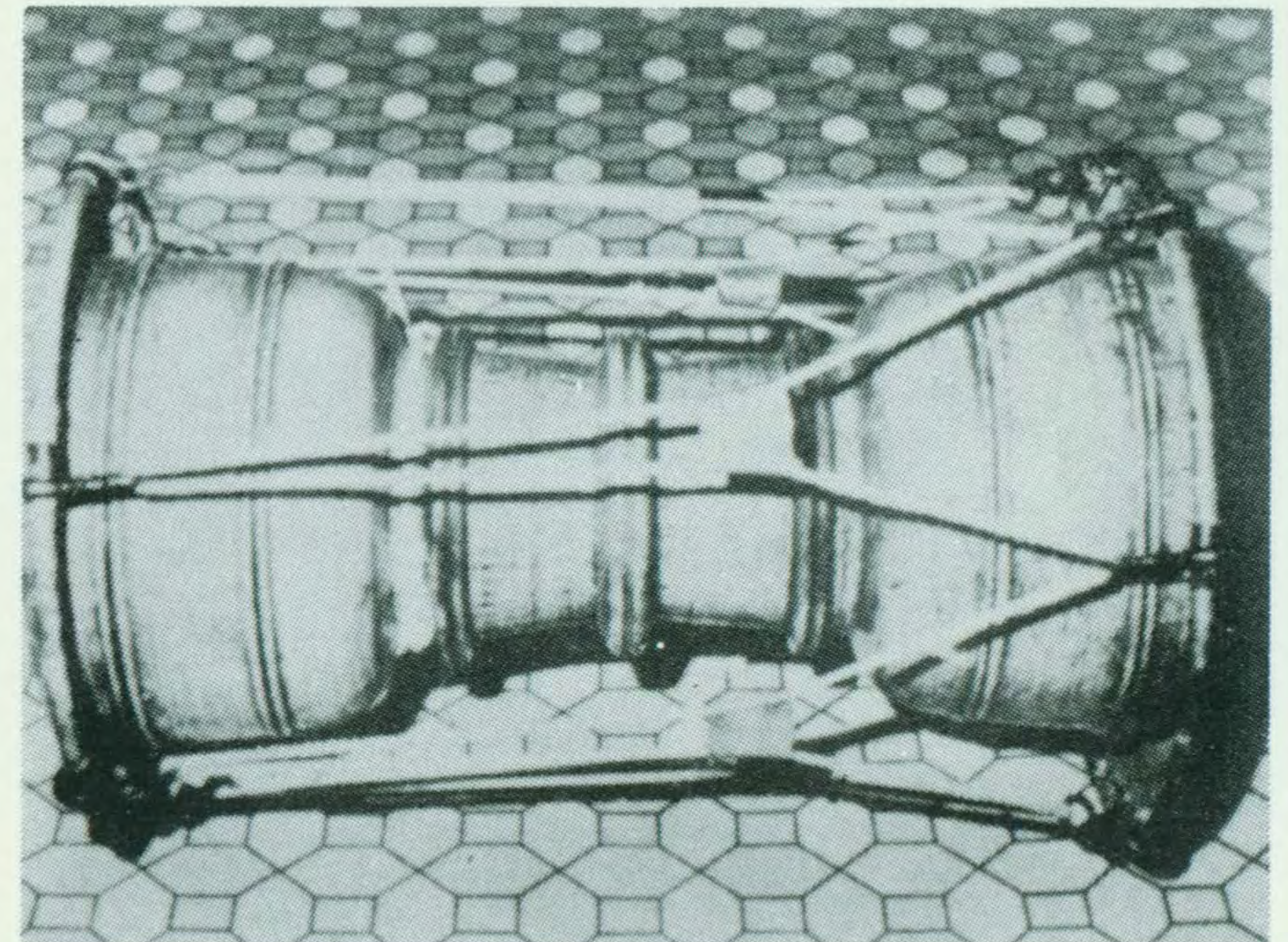
- 징 -



- 설쇠 -



- 요령 -



- 장고 -



● 人事의 말씀

第26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이곳 歷史의 고장 강릉에서 開催케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三多三無」의 濟州道는 그 地域的인 特殊性으로 인하여 옛 先人들의 숨결이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民俗文化의 本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승·고적지마다 傳說과 神話가 있고 마을마다 獨特한 民俗놀이와 固有한 民俗信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우기 北濟州郡은 天惠의 秀麗한 自然資源과 萬丈窟, 挾才窟등 世界的인 熔岩洞窟群, 각종 文化財, 항파두리 抗蒙遺蹟址와 같은 歷史的 숨결이 배인 고적들이 散在하고 있어서 가히 自然과 民俗文化가 한데 어우러진 郷土文化의 寶庫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豊盛하고도 由緒깊은 民俗놀이 한마당에 出演하게된 北濟州郡의 作品은 「불씨옹놀이」로서, 현재까지 그 由來와 來歷이 연면히 口傳되어 오고 있으며, 平和的인 對決로써 힘을 겨루어 本郷堂의 管理權을 가리는 치열하고도 깊은 信仰意識을 보여 주면서 終局에는 和合하는 분위기로 결말 짓는 島民特有의 生活樣式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作品을 통하여 우리 濟州先人들의 信仰形態와 生活相을 새로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傳統 民俗놀이가 現代와 接脈하는 하나의 신선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1985. 9.

北濟州郡守 金 仁 圭

解 說

이 ‘불싸움 놀이’는 北濟州郡 朝天面 臥屹里와 大屹里 住民들이 共同으로 本郷堂神을 모셨던 堂굿놀이에서 그 由來를 찾아볼 수 있다.

本郷堂神을 두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시고자 할때는 여러가지 갈등과 意見對立이 따르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들 두 마을도 예외없이 陰曆 正月 보름이면 部落共同祭 形式의 堂祭를 열어 한 해의 吉凶禍福을 점치고 家庭의 安寧과 豊年을 祈願하는 한편, 한 해 동안의 堂管理權을 바로 이 ‘불싸움 놀이’를 통하여 가름했다.

놀이의 進行은, 처음에 마을의 村長格인 公員들이 對話를 통하여 서로 堂管理權에 대한 是非를 가리다가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놀이로써 勝負를 가리자는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에 따라 마을을 代表하는 장사들이 나와서 줄 끝에 묶은 통나무에 불을 붙여 빙빙 돌리다가 서로 엇갈려 걸리게 하면 미리 준비하고 있던 대형밧줄에 통나무의 줄끝을 연결시킨 다음 양쪽 주민들이 줄당기기를 하는 힘의 對決로써 勝負를 決定짓는다.

이 대결에서 敗한 마을 주민들은 1년동안 本郷堂의 管理權을 포기해야 했으며, 대결이 끝난 후에는 서로 화해하고 양쪽 마을에서 共同으로 모시는 ‘李氏할망’을 위로하는 뜻에서 춤과 노래로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인다.

이처럼 堂神을 모시기 위한 마을간의 平和的·善意的 對決은 住民間의 和合과 親睦을 다지는 한편, 마을의 團合된 힘을 誇示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이 ‘불싸움 놀이’가 朝天面 臥屹리에 口傳되고 있으며, 本道의 많은 傳統民俗놀이 중에서도 매우 稀貴한 예라고 하겠다.

『불싸움 놀이』 시나리오

〈登場人物〉

- | | | | |
|------------|--------------|--------------|---------------|
| ○ 公 員 : 2명 | ○ 기 수 : 5명 | ○ 수 심 방 : 1명 | ○ 주 민 : 32명 |
| ○ 장 사 : 4명 | ○ 당 집 꾀 : 4명 | ○ 소 무 : 1명 | ○ 총 인 원 : 68명 |
| ○ 처 녀 : 4명 | ○ 농 악 : 12명 | ○ 악 사 : 3명 | |

S#1 入 場

운동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대의 한쪽 끝에 대기하고 있던 입장팀이 公演개시와 함께 大會旗, 영기, 本郷旗를 先頭로 수심방, 小巫, 악사가 뒤따르고 그 뒤로 위·아랫마을 주민들이 열을지어 입장한다.

당은 무대옆에 설치되어 있고 운동장 북판을 기준으로 양쪽에 정낭문이 세워져 있다. 그 뒤로 대형밭줄을 준비한다.

S#2 祭壇 도열

무대앞에 원형으로 도열한 주민들이 “인사요”하는 公員의 호령에 맞춰 인사를 올린다. 그 다음 당앞에 이미 설치된 祭床에 수심방에 의해 祭가 올려지고 소지와 잔을 올린후 公員에게 절을 청한다. 祭가 계속되는 동안 윗마을 住民들은 양손을 合掌하여 번영과 無事를 기원한다. 그리고 아랫마을 주민들은 선 자세로 팔을 걸어 올리는 등 일전의 태세를 취한다.

S#3 꽃 춤

공원의 절이 끝나면 담불소리에 맞추어 마을처녀 4명의 꽃춤이 이어진다.

S#4 아랫마을주민 등장

꽃춤이 끝날 무렵, 아랫마을 주민들이 “당 빼래 (뺏으러) 가자”는 그 마을 공원의 호령소리와 동시에 합성을 지르면서 어지럽게 뛰어나간다.

이때 윗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런 아랫마을 주민들의 出現에 놀라 운동장 가운데에 세워진 자기 마을 정낭문 앞으로 모여든다.

S#5 양 마을 대치

서로 정낭문을 앞에 하고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들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양쪽 마을 공무원들의 서로 당을 차지하려는 是非調의 對話가 오간다.

「對話 /」 불싸움의 발단

윗마을 공무원: “야! 이거 웬일이냐! 알동네 백좌수 공무원놈아! 왜 난디(난데) 없이 오날(오늘)은 우리 마을이 삼진 五月 대보름날 李氏할망을 위로하는 날인데, 어찌 마을 정낭문을 헤치고(헤치고) 들어오느냐!”

아랫마을 공무원: “야, 웃동네 공무원놈아 들으라니, 너희 마을에서는 우알(위아래) 동네 가운데 있는 이씨할망을 연년 위하여 農事도 잘 되고 子孫도 풍성하고 마을이 모두 펜안하게 잘 사는데, 우리 마을에는 우리 마을 한쪽 붙은 이씨할망을 너희들 때문 위하질 못하여 연년 흉년(凶年)만 들고 자손들도 나쁜 죽고 농사조차 안되니, 어찌 견딜 수가 있겠느냐!”

우리 마을에서도 이 할망을 차지하여 잘 위하고 우리 마을 부귀영화를 누리 살아보자 한다.”

윗 마을: “너 백좌수놈아 들으라니, 어찌 그 할망을 너희 마을에서만 모실 수 있겠느냐. 우리 마을에서는 삼백년이 넘도록히 직하여(지켜) 왔는데 함부로 넘길(넘길) 수 있겠느냐! 그 할망 由來를 알고나 있느냐!”

아랫마을: “웃동네 공무원아 들으라니, 우리가 너희들 위하는 할망의 유래를 듣기만 했지, 눈으로 본바는 없다.”

윗 마을: “야, 알동네 백좌수 공무원놈아, 네가 아무리 우김이 세고 장대가 좋다 하더라도 이 할망 유래나 똑똑히 눈으로 보아라.

야! 술난당아! 술항(항아리)을 어서 저놈앞에 내놔서 이씨할망 유래를 똑똑히 보여줘라!”

S#6 장사 술뿌림

公員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윗마을 장사 2명이 술항아리를 들고 나와 바가지로 술을 떠서 “하늘귀신도 먹엉 감서”, “땅귀신도 먹엉 감서” 하면서 東西南北으로 술을 뿌린후 한모금 마시고 술을 뱉는다. 술뿌림이 끝나면 다시 술독을 들고 퇴장.

S#7 由來에 대한 是非

「對話2」 本格的인 對決 제의

윗마을 公員: “저—알동네 公員놈아! 잘 봤느냐!”

아랫마을 公員: “허허— 우리가 보기는 똑똑히 잘 봤다마는, 우리가 듣건디는 이씨할망이 화덕체시(火德差使; 불꽃 내리우는 귀신, 불꽃귀신—벼락), 화덕진군(火德眞君)이 내려와 불에 타 죽었다는디, 이 할망을 불꽃으로 마음을 달랜다 하더니, 어찌 우리에게 그 유래를 아니 배우느냐!”

우리 알동네 마을에서는 화덕체시, 화덕진군을 다 츠리고(차리고) 왔다!”

윗 마을: “허허— 이놈아. 우리 마을에는 불난당놈과 화전(火戰)놈이 있다. 그러면 너희 마을에서는 화덕체시, 화덕진군을 내어서로 불싸움을 해서 어느 쪽이 이기는 쪽으로 할망을 모셔가기로 하자.”

아랫 마을: “거 좋은 말이다. 그러면 불지기들을 내세우고 우리 마을에서는 화덕체시, 화덕진군을 내어놓아 양쪽에 통줄을 매어 불싸움으로 대결하자!”

윗 마을: “좋다— 자, 불난당, 화전놈 나서라!”

아랫 마을: “화덕체시, 화덕진군 나오라! 불지기도 나서자! 불을 붙이자!”

윗 마을: “마을사람들은 통줄을 매라!”

아랫 마을: “자, 마을사람들아, 통줄을 메자!”

윗마을·아랫마을: “자—! 불싸움 나가자!”

S#8 불싸움놀이 진행준비

양쪽 주민들이 대형밧줄에 줄당기기 자세로 달라붙고, 양쪽 장사들은 줄끝에 묶은 통나무에 붙을 붙인다.

S # 9 불싸움놀이 개시

한쪽 마을에 두명씩 모두 4명의 장사들이 불붙은 통나무를 머리위로 올려 빙글빙글 돌리면서 한동안 서로 견제하다가 그중 양쪽 대표장사 1명씩이, 휘두르는 통나무를 엇갈려 걸리게 한다.

S # 10 밧줄과 통나무 연결

나머지 두 장사가 각각 걸린 통나무에 다시 자기들의 통나무를 든든히 걸어주고, 줄끝을 대형밧줄에 단단하게 연결시킨다.

S # 11 본격적인 힘의 對決

양쪽 마을 주민들이 모두 대형밧줄을 잡고, 그 중앙에 통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온갖 힘을 내며 밀리느니 당기느니 하는 줄당기기가 계속된다.

그동안 악사와 農樂, 처녀들은 돌면서 춤과 노래로 힘을 북돋운다. 이윽고 아랫마을로 힘이 쏠리면서 勝敗가 결정된다.

이긴쪽 마을 주민들은 신고 있던 짚신을 하늘높이 던져올리면서 기쁨에 넘치는 함성과 함께 농악에 맞추어 원을 돌며 신명나는 춤을 춘다.

이때 진쪽 마을 주민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한다.

堂 管理權을 뺏고 잃은 희비적인 광경이 한참동안 交叉한다.

S # 12 堂 管理權 이양

「對話 3」 對決前의 約束 確認

아랫마을 : “야, 웃동네 公員놈아 들으라니, 너희 마을은 오늘 불싸움으로 진것이 確實하다. 그러니 약속은 약속대로 할망우패 (위패) 를 우리에게 내 놓아야 할것이 아니냐!”

윗 마을 : “거 칭원호고 원통헌 일이여. 삼백년이 넘도록 직혀 (지켜) 오던 할망을 오늘은 백좌수 공원놈안티 (에게) 내어주게 되니, 이런 원통헌 일이 어디 이시랴!”

야, 알동네 백좌수 공원놈아! 너희들 손으로 이씨할망을 모셔가라!”

S#13 당집 옮김

이긴쪽 아랫마을 주민들이 춤을 추면서 윗마을에서 모시던 이씨할망 당집을 아랫마을로 옮긴다.

S#14 勝者와 敗者의 和合

「對話4」 德 談

아랫마을 : “자, 웃동네 公員. 이젠 어서 정낭 앞으로 나오서. 우리가 오늘은 이씨할망 대제일날 불싸움으로 승패를 꼴류와(갈라) 우리 마을이 이겼주마는, 서로 양 마을(마을)이 펜안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농사도 풍년들었 이웃마을이 잘 살면은 이웃이다 좋은 일이 아니우짜!”

허허~, 그러니 금년은 우리가 차지 하여가는 할망을 새해부터는 양쪽 마을이 습心하여 삼진 정월 대보름날 이씨할망을 위로하고, 서로간에 양쪽 마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여 오늘부터 양 마을 습心하는게 어떻허우짜!”

윗 마을 : “거 고마운 말씀이우다. 그러면 오늘 할망 堂祭日도 즐바루(올바르게) 잘 지내지도 못헌 터에 양 마을이 합해서 이씨할망 혼이라도 즐겁게 풍악으로 놀리는게 어떠합니까!”

아랫마을 : “거 좋은 말씀이우다. 우리 마을 풍악도 울러라! 노래쟁이 놀래(노래)도 불르라(부르라)!”

S#15 群 舞

대결을 끝내고 화합된 和平의 분위기속에 양쪽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합성을 터뜨리며 악기소리에 맞춰 서우젯 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원을 그리면서 매우 흥겹게 춤을 춘다.

S#16 하직인사

圓舞를 추다가 징소리에 맞춰 “하직이요” 하는 호령이 떨어지면 모두 땅에 엎드려 하직인사를 올린다.

S#17 退 場

징소리에 맞추어 인사를 끝낸후 주민들은 빠른 동작으로 각종 도구들을 챙긴다음 기수, 수심방, 소무, 악사, 농악, 그리고 마을 구분없이 주민들이 한데 섞인 상태로 악기소리에 맞춰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번호	성명	주소	성별	배역
27	김지운	북군 조천면 신흥리	여	당집군
28	이덕배	" "	"	"
29	김옥렬	" "	"	"
30	이근중	" "	"	"
31	강종윤	" "	"	약사
32	한공신	" "	"	"
33	한갑생	" "	"	"
34	최중례	" "	"	"
35	김호찬	" "	남	마을주민
36	오갑용	" "	"	"
37	강동우	" "	"	"
38	현찬호	" "	"	"
39	김영팔	" "	"	"
40	김수일	" "	"	"
41	임천구	" "	"	"
42	장희석	" "	"	"
43	김명준	" "	"	"
44	김주형	" "	"	"
45	엄원행	" "	"	"
46	손유배	" "	"	"
47	손성종	" "	"	"

번호	성명	주소	성별	배역
48	손계봉	북군 조천면 신흥리	남	마을주민
49	이용문	" "	"	"
50	이차관	" "	여	"
51	김순자	" "	"	"
52	강치훈	" "	"	"
53	이화성	" "	"	"
54	김양자	" "	"	"
55	손진생	" "	"	"
56	이순산	" "	"	"
57	고순희	" "	"	"
58	김정여	" "	"	"
59	한옥림	" "	"	"
60	정학녀	" "	"	"
61	한순자	" "	"	"
62	김순희	" "	"	"
63	윤정홍	" "	"	"
64	한옥석	" "	"	"
65	엄연번	" "	"	"
66	문연근	" "	"	"
67	김금순	" "	"	"

北濟州郡 位置圖

